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0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4월 5일 화요일 (음 2월 28일) 제153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4.13 총선 D-8



전주 병 선거구가 전국 초박빙 선거구로 뜨고 있다. 왼쪽 사진은 김종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3 총선 공식 선거운동 돌렛날인 지난 1일 전주시 모래내시장 입구에서 더드림 유세단과 함께 전주시를 최형제, 전주 덕진 김성주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지난달 31일 국민의당 전주병 정동영 후보가 전북 전주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유권자와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

달라지는 올해 수능

## 한국사 필수

지난해까지 필수영역에 지정되지 않았던 한국사 영역이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새로운 필수과목으로 지정된다.

4월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한국사 영역 필수 지정과 국어영역 공통시험, 수학 영역의 가·나형, 직업탐구 영역 시험과목 변경 등 올해 몇 가지 달라진다.

우선 한국사 영역의 경우 필수영역으로 지정돼 4교시에 한국사 영역 시험이 후 탐구영역을 치르게 되고 성적표지표에는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기재하게 된다.

국어영역, 유형 구분없이 공통화 수학영역, 가·나형으로 바뀌어 직업탐구, 과목10개 중 2개 선택

이와 함께 국어 영역도 A·B형 수준별 시험 대신 공통시험으로 치르게 되며 출제 범위는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이다.

수학 영역도 A·B형 수준별 시험 대신 가·나형 시험으로 바뀌며 출제범위는 가형은 수학II, 미적분I, 확률과 통계이며 나형은 미적분II,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이다.

직업탐구 영역도 종래의 5개 시험과목 중 택을 했던 방식에서 10개 시험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며 제외국어 영역에서 기초 베트남어는 베트남어 I로 변경됐다.

시험장에서 휴대 가능한 시계도 다소 달라졌다. 전자식 기능이 포함된 시계의 반입은 금지되고 아날로그시계만 허용된다.

이와 함께 수험생은 휴대한 시계를 1·3교시 본인 여부 확인 시간에 신분증, 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아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오는 11월 17일 시행되며, 원서 접수는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 메일 INDEX

6면 외산담배, 군납배신장기준에 뿔났다

## 전국 최대 격전지 전주 병 김성주 - 정동영 막상막하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선후배간'의 접전 등으로 묘사되는 전주병 선거구의 김성주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정동영 후보(국민의당)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앞지러져서라하는 결과를 보여 '소문난' 격전지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과시(?)하고 있다.

4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이 신문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북 전주병 유권자 513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30~31일 전화면접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3%포인트, 응답률 10%)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가 38.3%로 더민주 김성주 후보(33.3%)를 5.0%p 앞섰다.

당선 가능성에서는 정 후보가 41.5%를 차지하며 김 후보(33.7%)와 간격을 더 벌였다.

그러나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 41.1% 정 후보 40.9%로 결과가 뒤집혔다.

앞서 지난 1일 YTN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정 후보를 2.1%p 앞선 바 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29일~31일 동안 이 지역 유권자 514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3%포인트, 응답률 20.4%)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김 후보 40.2% 정 후보 38.1%로 김 후보가 정 후보를 앞섰다.

또 지난달 28일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김 후보를 2.7%포인트 앞서 뒤집힌 판세를 보였다.

### 각종 기관 여론조사

### 오차범위 내 대접전

### 선부른 예측 불허

### 정가 "표 열어야 알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달 21일~22일 동안 이 지역 유권자 6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0%포인트, 응답률 25.5%)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정 후보가 36.6% 김 후보가 33.9%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쳤다.

이와 함께 지난달 24일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다시 김 후보가 정 후보를 오차범위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밀워브리온미디어 리서처에 의뢰해 지난달 22~23일 동안 이 지역 유권자 532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2%포인트, 응답률 11.2%)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김 후보 37.4% 정 후보 32.4%로, 김 후보가 정 후보를 5.0%p 앞섰다.

이어 지난 달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KBS·연합뉴스의 조사에서도 김 후보가 정 후보를 10%포인트 가까이 앞서서 것으로 나타났다.

KBS와 연합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주)코리아 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 달 22일~23일 동안 이 지역 유권 5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응답률 18.7%)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김 후보가 42.2% 정 후보가 32.6%로 김 후보가 정 후보를 9.6%p 앞서서 결과가 나왔다.

전북지역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도 김 후보와 정 후보는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1일 뉴스1 전북취재본부에 따르면 정 후보가 김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 전북취재본부는 여론조사기관 여민리서치컨설팅에 의뢰, 3월30일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 82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4% 응답률 4.8%)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 후보가 46.6% 김 후보가 44.5%를 나타내 정 후보가 2.1%p 앞섬으로써 두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박빙 승부를 펼치는 걸로 조사됐다.

반면 지난 3월 30일 전주 MBC 등과 지난 전북매일신문이 조사한 1·2차 여론조사에는 김 후보가 정 후보를 앞서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MBC·JTV전주방송·전북도민일보가 합동으로 여론조사기관인 (주)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 달 25일부터 29일까지 5일에 걸쳐 해당 선거구 유권자 5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4%p, 응답률 22.3%)에게 전화면접을 통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김 후보

가 39.9% 정 후보가 35.1%의 지지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조사에 따르면 당선가능성에 대해서도 김 후보 39.8% 정 후보 36.1%의 응답을 받아 유권자들은 후보지지도와 비슷한 당선가능성을 짐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매일신문이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여론조사에는 김 후보가 모두 앞서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매일신문은 지난 달 24일~26일에 걸쳐 1차 조사(모노커뮤니케이션즈)에 해당지역 유권자 700명에게 유선ARS(92.7%)와 스마트폰 앱(7.3%) 등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7%p, 응답률 4.8%) 김 후보 39.9% 정 후보 37.9%의 지지도를 보였다. 이어 지난 1일~2일에 걸쳐 여론조사기관 모노커뮤니케이션즈(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유선ARS(88.8%)와 스마트폰앱(11.2%)를 통해 해당 지역 유권자 624명에게 2차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9%p, 응답률 7.9%) 김 후보가 41.5% 정 후보가 41.2%를 보여 0.3%p의 차이를 보임으로써 초박빙 격전지에 대한 면모(?)를 과시했다.

정가 한 관계자는 "이 지역 두 후보의 지지도가 바로 전북에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바람과 직결된다고도 볼 수 있다"면서 "이런 혼전 양상은 표를 열어야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 실현

행복한 대한민국  
아름다운 선거

## 함께할 때 더욱 아름다운 날이 있습니다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꼭 투표하세요!

사전투표: 4월 8일(금)~9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투표: 4월 13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꼼꼼하게 비교하고 투표하세요!

www.nec.go.kr 선거정보포털  
info.nec.go.kr 후보자 정보  
www.debates.go.kr 후보자 토론회 다시보기  
party.nec.go.kr 정책공약 알리미

후보자 바로알기 주간(4월 1일~7일)

사전투표일 전 1주일을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 평가하고 숙의하는 기간으로 지정하여 후보자를 바로 알고 올바르게 선택하는 것입니다.